

겨울철 잠옷이용실태와 구매시 평가기준

Using and Evaluative Criteria for Purchasing of Sleepwear in Winter

권수애, 최종명^{*}, 김은영

충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서원대학교 의류학과^{*}

Kweon, Soo-Ae · Choi, Jong-Myoung · Kim, Eun-Young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w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using and evaluative criteria for purchasing of sleepwear in winter. Subjects were 523 males and females aged from twenties to fifties, living in Chongju and Taejon. For data analysis, frequency,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F-test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wnership of sleepwear was sweat suits with zippered top, pajamas, T-shirts/pants, underwear, and nightgown in order. The mean of using sweat suits was used the highest, and subjects used more home wear than sleepwear in winter.

Second, the using of sleepwear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ld-sensitiveness and body types. Cold-sensitive group used sweat suit and T-shirts/pants more than cold-insensitive group. Also, groups who are thin wore sweat suit the most while groups who are corpulent, used underwear the most when they slept.

Third, subjects, who are married women and use bed, used nightgown, but pajamas were used by groups who are older, married, and professional. Sweat suits and T-shirts/pants were used the most by single aged twenties.

Forth, consumers considered the wearing comfort when they purchased sleepwear for winter, and they evaluated washing/management, fabric, design/style, economic, service, brand, and others' response in order, for judging the quality of sleepwear. Also, the evaluative criteria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sex, occupation, and marital state.

These results implied that sleepwear would be needed for winter in terms of behavioral temperature regulation. Especially, cold-sensitive and thin group would wear knitted and two-piece sleepwear for thermal comfort when they sleep in winter. Also, Using and evaluative criteria of sleepwear would be different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winter, sleepwear should be develop based on physiologic as well as demographic variables.

Key words: sleepwear, use of sleepwear, cold-sensitiveness, body types, evaluative criteria

Corresponding author : Kweon, Soo Ae

Tel. (043) 261-2749, Fax. (043) 276-7166

E-mail: sooaee@cbucc.chungbuk.ac.kr

I. 서 론

인간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생리적 체온조절 이외에 의복, 주택, 음식, 운동 등의 문화적, 행동적 체온조절 수단을 활용하며 이 중 의복은 인체의 근접한 곳에서 생리적 또는 주관적 패작성에 영향을 주는 도구가 되고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환경에서 에너지 대사율은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 감소하고 겨울에 증가하는 연간 변동을 보이는 것이 환경에의 적응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황수경 등, 1999). 그러므로 계절에 따라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신체의 체온조절을 위한 의복기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추위에 대한 체온조절반응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행동성 체온조절반응의 하나인 의복착용 습관 또한 그러하다. 의복을 착용하는 습관과 형태는 개인의 감각적,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다르겠으나 (Jeong, 1999; Kim 등, 1995),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적 온도감각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Stolwijk(1977)도 온냉감과 열적 불쾌감이 행동성 반응을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최근 패적한 실내기후, 패적한 의복기후 등과 같은 인공기후의 혜택으로 계절별 기초대사의 변화가 없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황경숙, 1997), 이렇게 계절별 기초대사의 변화가 없어지는 추세에 따라 계절별 의복착용 추이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적 측면에서 2000년 란제리 및 잠옷은 매출액이 약 9천 8백억 원의 규모에서 2002년 약 1조 1천9백억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잠옷을 포함한 내의 시장의 전망은 긍정적인 추세이다. 또한 권익현(1999)은 인간 사회와의 조화가 중요시되면서 환경, 안전, 건강, 패적 등에 맞추어 섬유소재와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세대적 섬유산업의 미래를 발표하였다.

잠옷은 내의류와 마찬가지로 섬유의 종류와 편안함과 같은 기능적 측면의 내재적 평가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되며(김미영 등, 1989), 수면시에는 안정시보다 에너지 대사율이 저하되고 땀이 나기 쉬우므로 잠옷은 흡수성과 통기성이 풍부하고 피

부를 자극하지 않는 부드러운 감촉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심부자, 1984).

또한 잠옷은 겉옷이나 내의에 비해 구매빈도가 낮은 저관여 제품특성을 가지지만, 여성, 전문직, 또는 연령이 많은 특정 소비층에서는 고관여 제품특성을 나타내므로(권수애 등, 2000) 잠옷 이용도와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기획뿐만 아니라 소재 및 기능성을 고려한 감성공학적 제품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 추위에 민감하거나 체온조절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이나 체형에 따라 침상기후조절을 위한 잠옷차의 행동은 체온조절상 수면 패작성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잠옷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여름철과 비교하여 계절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 생리적,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잠옷이용정도와 구매시 잠옷평가기준을 조사하여 겨울철 잠옷제품개발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잠옷이용실태와 구매시 평가기준을 파악하여 겨울철 잠옷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겨울철 잠옷소유빈도와 이용도를 파악한다.

연구문제 2. 생리적 특성과 사회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잠옷이용도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3. 겨울철 잠옷 구매시 고려된 평가기준을 파악한다.

연구문제 4. 사회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잠옷 구매시 평가기준의 차이를 밝힌다.

2. 조사도구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권수애 등(2000)의 여름철 잠옷의

후속연구로서 청주와 대전에 거주하는 20~50대 남녀를 표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권수애 등, 2000; 나영주, 1990)의 질문지를 겨울철 잠옷조사를 위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잠옷유형별 소유여부 5문항, 잠옷유형별 이용도 5문항, 구매시 평가기준 8문항, 생리적 특성(신장, 체중, 수면시간, 추위/더위를 타는 정도) 5문항, 사회인구학적 변인(성, 연령, 학력, 월평균수입, 결혼여부, 직업, 주거형태, 취침양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조사는 2000년 1월~2월에 시행되었으며, 총 650부를 배부하여 523부가 최종 통계처리 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을 이용하여 빈도분석(빈도, 백분율),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t-검증, F-검증 및 LSD($\alpha=0.05$)의 사후검증을 실행하였다.

III. 결과분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분포는 여성이 60%, 남성이 40%이었으며, 연령은 25~29세(28.5%), 20~24세(27.4%), 40~49세(21.0%), 30~39세(12.3%), 50~59세 (10.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 재학생이 53.0%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상이 34.7%를 차지하여 대체로 높은 학력 수준의 집단이었다. 가정의 평균 월수입은 100~200만원미만이 39.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100만원미만(27.9%), 200~300만원미만(22.6%), 300만원이상(10.4%)순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 32.2%, 미혼 67.7%이며, 직업은 학생이 53.4%로 가장 많고, 전문직(21.0%), 비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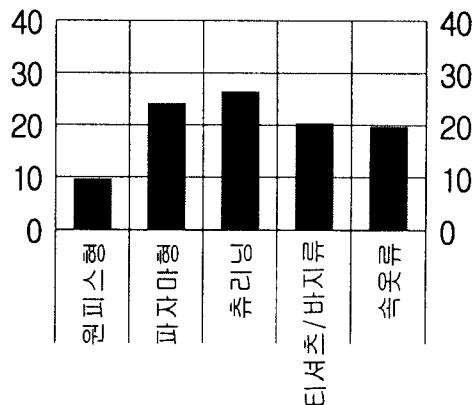
직(15.7%), 주부/무직(9.9%)의 순이었다.

주거환경의 특성으로 아파트 거주자가 56.0%로 가장 많았으며, 수면시 주로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41.0%)와 온돌을 사용하는 경우(36.5%)가 비슷한 수준이고 22.5%는 침대와 온돌에서 요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겨울철 잠옷이용실태

1) 잠옷유형별 소유빈도

겨울철 잠옷유형별 소유빈도를 살펴본 결과, 츄리닝(26.4%), 파자마형(24.1%), 티셔츠/바지류(20.3%), 속옷류(19.6%), 원피스형(9.6%)순으로 나타나 겨울철 잠옷으로서 츄리닝과 파자마를 잠옷으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여름철 잠옷소유빈도의 연구(권수애 등, 2000)와 비교할 때, 원피스형은 여름철(21.2%)보다 소유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츄리닝의 소유빈도는 높았다. 한편 파자마형과 티셔츠/바지류는 계절에 관계없이 비슷한 소유빈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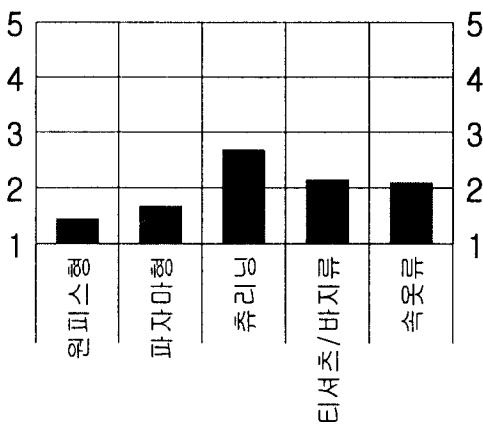


〈그림 1〉 잠옷유형별 소유율 (%)

2) 잠옷유형별 이용도

잠옷유형별 이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5점 리커트형으로 '매우 자주 사용한다'에 5점, '전혀 사용

하지 않는다'에 1점을 주어 분석한 결과, 이용도의 평균값은 츄리닝(M=2.68), 티셔츠/바지류(M=2.14), 속옷류(M=2.09), 파자마형(M=1.67), 원피스형(M=1.44)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2〉 잠옷유형별 이용도

모든 유형의 잠옷 이용도 평균치가 3점이하인 것으로 보아 겨울철에는 취침시 잠옷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유빈도와 비교할 때 실제 취침시에는 소유빈도가 높았던 파자마보다는 츄리닝과 티셔츠/바지류를 더 많이 이용함으로서 겨울철에는 별도의 잠옷을 이용하지 않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여름철 (권수애 등, 2000)과 비교할 때, 여름철 취침시 원피스와 파자마의 착용정도가 3점이상의 평균값을 보인 반면, 겨울철에는 대체적으로 이용도가 낮았으며, 특히 파자마와 원피스형의 별도 잠옷이용도는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취침시 이용되는 잠옷유형에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의복의 보온력이 소재보다는 형태에 따라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손원교 등, 1999) 기존의 잠옷제품이 형태 측면에서 계절

별로 차별화된 제품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겨울철 잠옷으로서의 기능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겨울철에는 여름에 비해 츄리닝이나 파자마형 잠옷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는 겨울철 잠옷감은 포근함과 온열감을 선호하고(Kweon et al., 2000), 원피스형보다는 투피스형이 더 보온력이 높으며 평균피부온을 증가시켜 추운환경에서 열적쾌적성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손원교 등, 1999)와 일치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바지형태와 투피스의 잠옷형태를 이용함으로써 수면시 침상기후 및 쾌적성을 조절하는 기후에 대한 행동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겨울철 잠옷으로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보온성을 고려한 스타일과 소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생리적 특성에 따른 잠옷유형별 이용도

인간의 생리적 측면인 체형, 더위와 추위를 타는 정도, 수면시간 등은 의복의 착의량이나 습관에 영향을 준다(정운선, 200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리적 특성 변수로서 Rohrer지수에 의한 체형, 그리고 수면시간, 추위와 더위를 타는 정도에 따른 잠옷유형별 이용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조사대상자의 생리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신장의 범위는 136~187cm로, 평균 166cm였으며, 체중은 38~95kg의 범위로 평균 57.8kg이었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평균신장 173.1cm(SD=5.0), 평균 체중 66.9kg(SD=7.5)이며, 여성은 평균신장과 체중이 각각 161.2cm(SD=4.9), 51.3kg(SD=5.6)의 분포를 보였다. 신장과 체중에 의해 산출된 Rohrer지수¹⁾의 범위는 99.1~238.5 (M=125.9, SD=15.6)로 매우 여원형은 없었으며 매우 비만형, 비만형, 보통형, 여원형의 4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추위를 타는 정도와 더위를 타는 정도는 5점 리커트형으로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 추위를 타는 정도는 평균 3.63(SD=.99)이었고, 더위를 타는 정도는 평균 3.47(SD=3.47)로 나타났다.

1) Rohrer 지수 = (체중/신장³) × 10⁷

156이상: 매우비만형, 156~140: 비만형, 140~109: 보통형, 109~92: 여원형, 92미만: 매우여원형

〈표 1〉 체형별 잠옷이용도

체형 \ 잠옷	원피스형	파자마형	츄리닝	티셔츠/바지류	속옷류
여원형	1.46(1.05)	1.64(1.28)	3.21(1.72) a	2.26(1.56)	1.40(1.08) c
보통형	1.44(1.07)	1.67(1.24)	2.73(1.74) a/b	2.19(1.60)	2.08(1.58) b
비만형	1.45(1.08)	1.71(1.27)	1.94(1.50) c	1.58(1.22)	2.56(1.83) a
매우비만형	1.52(1.33)	1.62(1.24)	2.24(1.51) b/c	2.29(1.49)	3.24(1.92) a
F value	0.48	0.03	5.14**	2.55	7.75***

** p<.01 *** p<.001

abc : LSD test 결과 알파벳이 다른 것은 평균이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

〈표 2〉 추위 타는 정도에 따른 잠옷이용도

추위타는 정도 \ 잠옷유형	원피스형	파자마형	츄리닝	티셔츠/바지류	속옷류
적계타는집단	1.30(0.92)	1.69(1.25)	2.81(1.76) a/b	1.99(1.46) a/b	2.46(1.73)
보통집단	1.32(0.95)	1.79(1.39)	2.36(1.66) b	1.89(1.41) b	2.20(1.65)
많이타는집단	1.52(1.13)	1.59(1.18)	2.83(1.76) a	2.30(1.64) a	1.97(1.55)
F value	2.35	1.25	3.61*	3.91*	2.89

* p<.05

생리적 변수에 따른 잠옷유형별 이용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체형과 추위를 타는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체형별 잠옷이용도는 츄리닝과 ($F=5.15$, $p=.002$) 속옷류($F=7.75$,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츄리닝 이용도는 여원형($M=3.21$)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비만형($M=1.94$)집단에서 가장 적은 이용도를 보였다. 한편, 속옷류의 이용도는 비만형, 보통형, 여원형 세집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매우비만형($M=3.24$)과 비만형($M=2.56$)이 취침시 속옷이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보통형($M=2.08$), 여원형($M=1.40$)순으로 나타났다(표 1).

따라서 체형에 따라 취침시 이용하는 잠옷의 유형이 다르며, 특히 겨울철 수면시 마른체형은 비만형에 비해 피복면적이 크고 직물보다는 보온성이 큰 편성물을 이용함으로써 침상기후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겨울철 잠옷이용도는 추위를 타는 정도에 따라 잠옷유형별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표 2).

츄리닝($F=3.61$, $p=.028$)과 티셔츠/바지류($F=3.91$, $p=.02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추위를 많이 타는 집단이 그렇지 않는 집단보다 츄리닝과 티셔츠/바지류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열적 패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위에 민감한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옷을 더 입을 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더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피부온을 높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 연구결과(정운선, 2000)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겨울철 잠옷은 특히 추위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취침시 체온조절반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잠옷이용도

잠옷 이용도는 성, 연령, 수입, 직업, 결혼여부, 주거형태, 취침양식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성별에 따라 여성은 남성보다 원피스형, 파자마형, 티셔츠/바지류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잠옷유형별 이용도

		원피스형	파자마형	츄리닝	티셔츠/바지류	속옷류
성	남성	1.00 (.00)	1.47 (1.10)	2.58 (1.67)	1.75 (1.28)	2.51 (1.78)
	여성	1.73 (1.30)	1.80 (1.33)	2.76 (1.78)	2.41 (1.67)	1.81 (1.42)
	t-value	-7.92***	2.97**	-1.14	4.82***	4.98***
연령	20·24세	1.52 (1.17)	1.45 (1.02) b	3.52 (1.54) a	2.90 (1.66) a	1.93 (1.51) b/c
	25·29세	1.38 (0.98)	1.54 (1.17) b	3.09 (1.80) b	2.20 (1.59) b	1.81 (1.38) c
	30·39세	1.57 (1.23)	1.67 (1.27) a/b	2.51 (1.77) c	1.63 (1.30) c	1.97 (1.57) b/c
	40·49세	1.46 (1.03)	2.02 (1.48) a	1.65 (1.24) d	1.70 (1.35) c	2.30 (1.76) b
	50세이상	1.23 (0.85)	1.93 (1.39) a	1.73 (1.31) d	1.48 (0.99) c	3.00 (1.82) a
	F-value	1.11	4.18**	29.65***	16.59***	6.74***
수입	100만원미만	1.38 (1.06)	1.49 (1.09) b	2.63 (1.79)	1.99 (1.57) b	2.12 (1.65)
	100~200만원미만	1.46 (1.09)	1.85 (1.37) a	2.49 (1.71)	1.96 (1.46) b	2.02 (1.58)
	200~300만원미만	1.45 (1.04)	1.51 (1.09) b	2.91 (1.71)	2.44 (1.69) a	2.38 (1.72)
	300만원이상	1.64 (1.22)	1.86 (1.44) a/b	2.71 (1.69)	2.16 (1.33) a/b	2.14 (1.52)
	F-value	0.713	3.19*	1.37	2.61*	1.17
직업	비전문직	1.28 (0.86) b	1.65 (1.26) b	2.14 (1.64) b	1.64 (1.27) b	2.13 (1.72)
	전문직	1.45 (0.99) b	2.04 (1.45) a	1.74 (1.36) b	1.69 (1.29) b	2.39 (1.70)
	주부/무직	1.86 (1.54) a	1.82 (1.40) a/b	1.88 (1.45) b	1.74 (1.44) b	2.24 (1.76)
	학생	1.41 (1.04) b	1.51 (1.11) b	3.34 (1.67) a	2.56 (1.65) a	1.92 (1.48)
	F-value	3.26*	4.96**	36.02***	14.29***	2.50
결혼 여부	기혼	1.46 (1.08)	2.06 (1.48)	1.63 (1.24)	1.55 (1.16)	2.41 (1.76)
	미혼	1.43 (1.07)	1.47 (1.08)	3.19 (1.72)	2.41 (1.65)	1.95 (1.52)
	t-value	0.28	5.11***	10.38***	6.00***	3.03**
주거 형태	단독주택	1.39 (1.06)	1.70 (1.36)	2.72 (1.79) b	2.12 (1.59)	2.01 (1.61)
	연립주택	1.47 (1.10)	1.55 (1.12)	3.36 (1.58) a	2.62 (1.76)	1.77 (1.34)
	아파트	1.47 (1.07)	1.68 (1.21)	2.54 (1.71) b	2.08 (1.50)	2.21 (1.64)
	F-value	0.36	0.26	4.60**	2.46	2.02
취침 양식	온돌사용	1.25 (0.81) b	1.47 (1.08) b	2.64 (1.74)	2.14 (1.58)	2.28 (1.75)
	침대사용	1.63 (1.29) a	1.84 (1.41) a	2.56 (1.75)	2.11 (1.56)	1.91 (1.47)
	침대온돌병행	1.40 (0.93) a/b	1.67 (1.14) a/b	3.03 (1.68)	2.22 (1.55)	2.15 (1.60)
	F-value	6.65***	4.52*	2.85	0.16	2.73

* p<.05, ** p<.01, *** p<.001

속옷류는 여성보다 남성이 취침시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름철 잠옷결과(권수애 등, 2000)와 일치하므로 계절보다는 성별에 따른 잠옷착용습관 및 요구도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잠옷이용도는 파자마형, 츄리닝, 티셔츠/바지류, 속옷류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파자마형은 20대에 비해 40대이상의 연령이 많을수

록 더 많이 이용하였다. 그러나 츄리닝과 티셔츠/바지류는 20대초반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가장 적게 이용하고 있었다. 여름철과 달리 겨울철 취침시 50대가 내의류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50대 이상은 체온조절능력이 떨어지므로 취침시 잠옷보다는 보온성 내의를 통해 침상기후의 쾌적성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과 잠옷이용도를 보면, 파자마는 월수입 100-200만원과 300만원이상의 집단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티셔츠/바지류는 200-300만원미만과 300만원이상의 집단에서 이용도가 높았다. 따라서 월수입이 높은집단에서 파자마형의 별도 잠옷을 이용하는 경향이었으며, 한편, 티셔츠/바지류도 수입이 많을수록 이용도가 높았는데, 이는 본 조사 표본의 50%이상이 대학생으로서 수입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부모의 월수입과 20대 초반의 개인취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에 있어서 원피스형, 파자마형, 츄리닝, 티셔츠/바지류 이용도에 차이를 보여, 원피스형은 주부집단에서, 파자마형은 전문직 집단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츄리닝과 티셔츠/바지류는 대학생집단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과 관계되어 설명될 수 있다.

결혼여부에 있어서 기혼자들은 미혼자들보다 파자마형과 속옷류를 취침시 더 많이 이용한 반면, 미혼자들은 기혼자들보다 츄리닝과 티셔츠/바지류를 잠옷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기혼자들이 미혼자들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으므로 연령이 많을수록 파자마형이나 속옷을 이용하고 있는 결과와 관련되어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츄리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츄리닝을 더 많이 잠옷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형태에 따른 겨울철 실내 난방시스템과 관계될 것으로 본다. 또한, 취침양식에 있어서는 침대사용집단과 온돌사용집단에서 잠옷 유형 중 원피스형과 파자마형의 이용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침대를 사용하는 집단이 온돌을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 원피스와 파자마형의 별도의 잠옷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여름철 결과(권수애 등, 2000)와 일치하므로서 잠옷은 걸옷과 달리 소비자들의 취침양식이나 주거양식의 주택환경에 영향을 받는 의복임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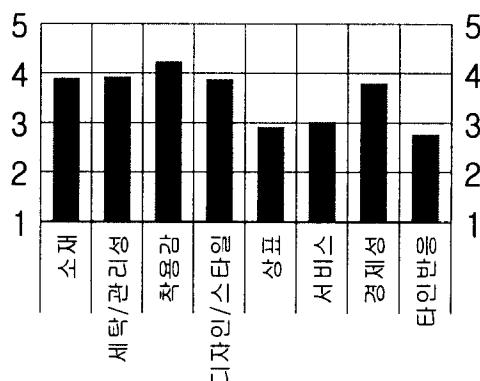
위와 같이, 원피스형 잠옷은 주부와 침대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파

자마형 잠옷은 40세이상의 기혼여성, 고학력자이며, 월수입 100-200만원 정도의 전문직 또는 월수입 300만원이상의 고소득층, 침대를 사용하는 소비자층에게 이용되고 있다. 겨울철에 많이 이용되는 츄리닝은 20대초반의 남녀, 대학생,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게 이용되는 잠옷이며, 티셔츠/바지류는 20초반의 여대생이나 20대 후반의 미혼여성에게 가장 이용도가 높고, 속옷류는 50대이상의 남성기혼자들에게 잠옷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겨울철 잠옷구매시 평가기준

1) 겨울철 잠옷 구매시 고려된 평가기준

겨울철 잠옷 구매시 평가기준의 고려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2.76~4.23의 범위를 보였다. 평가기준 중 착용감이 4.23의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겨울철 잠옷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결정적 속성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세탁 및 관리용이성($M=3.92$, $SD=.85$), 소재($M=3.89$, $SD=.84$), 디자인 또는 스타일($M=3.87$, $SD=.93$), 경제성($M=3.79$, $SD=.82$), 서비스($M=3.01$, $SD=1.02$)가 3점이상의 평균값을 보였고, 상표($M=2.91$, $SD=1.01$), 다른사람의 반응($M=2.76$, $SD=1.08$)순으로 고려되고 있었다(그림 3).



〈그림 3〉 겨울철 잠옷구매시 고려된 평가기준

이와 같이, 겨울철 잠옷의 구매시 착용감과 세

〈표 4〉 잠옷유형별 구매시 평가기준의 고려정도

평가기준 잠옷유형	원피스형 M (SD)	파자마형 M (SD)	츄리닝 M (SD)	티셔츠/ 바지류 M (SD)	속옷류 M (SD)
소재	4.08 (.82)	3.98 (.78)	3.82 (.81)	3.86 (.83)	3.91 (.88)
세탁/관리성	4.08 (.79)	3.99 (.75)	3.90 (.82)	3.93 (.81)	3.86 (.92)
착용감	4.25 (.77)	4.24 (.72)	4.21 (.69)	4.26 (.74)	4.21 (.79)
디자인/스타일	4.14 (.96)	3.93 (.87)	3.88 (.89)	3.98 (.91)	3.86 (.96)
상표	3.08 (.98)	3.13 (.99)	2.88 (.96)	2.94 (1.04)	3.01 (1.04)
서비스	3.10 (.99)	3.13 (1.00)	2.95 (.98)	2.97 (1.00)	2.96 (1.02)
경제성	3.69 (.84)	3.70 (.79)	3.83 (.80)	3.85 (.80)	3.82 (.86)
타인반응	2.98 (1.15)	2.77 (1.07)	2.82 (1.05)	2.82 (1.06)	2.78 (1.10)

탁 및 관리용이성의 추구혜택을 위한 섬유의 종류 및 태, 직물 등의 기능실용적 측면이 중요한 제품속성임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여름철 잠옷 구매시 착용감(4.01), 소재/관리성(3.87), 경제성(3.84), 심미성(3.74), 서비스(3.16), 상징/유행성(3.15)순으로 고려한다고 제시한 선행 연구(권수애 등, 2000)와 비교할 때 매우 유사한 결과로서 잠옷은 계절에 관계없이 수면이라는 특수상황에 적합한 기능성 뿐만 아니라 세탁과 관리의 실용성을 고려한 소재와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2) 잠옷유형별 평가기준

잠옷유형별로 고려된 평가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유형별 소유집단의 표본만 추출하여 각 평가기준별 고려정도의 평균을 비교하였다(표 4).

잠옷유형에 관계없이 구매시 착용감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매시 평가기준을 잠옷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원피스형 잠옷을 소유한 집단은 착용감(4.25), 디자인/스타일(4.14), 소재(4.08), 세탁/관리성(4.08)을, 파자마형 잠옷을 소유한 집단은 착용감(4.24), 세탁/관리성(3.99), 소재(3.98)를, 츄리닝을 소유한 집단은 착용감

(4.21), 세탁/관리성(3.90), 디자인/스타일(3.88), 경제성(3.83)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티셔츠와 바지류를 소유한 집단은 착용감(4.26), 디자인/스타일(3.98), 세탁 / 관리성(3.93)을, 속옷류를 잠옷으로 이용하는 집단은 착용감(4.21)과 소재(3.91)측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었다.

한편, 평가기준별로 비교해 볼 때, 원피스형 잠옷을 소유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디자인/스타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려하고 있었고, 원피스형과 파자마형인 별도의 잠옷제품을 소유한 집단은 타집단에 비해 상표 및 서비스 요인도 3점 이상의 평균값을 보여 잠옷제품에 대한 상표지향성이 높은 소비자로서 차별적 구매행동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경제성은 별도의 잠옷을 소유한 집단보다 츄리닝, 티셔츠/바지류, 속옷을 잠옷으로 대체하여 소유한 집단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경제성을 고려한 집단일수록 별도의 잠옷을 구입하지 않고 츄리닝이나 티셔츠/바지류 또는 속옷을 잠옷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잠옷유형별 구매시 고려된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취침시 이용하는 잠옷에 대해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혜택과 기대성능이 다르다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잠옷유형별 소비자 특성을 밝혀 목표소비자에게 맞는 제품개발 및 차별화 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잠옷 구매시 평가기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잠옷 구매시 평가기준을 분석한 결과, 성, 학력, 직업, 결혼여부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

전체적으로 겨울철 잠옷 구매시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평가기준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으나 성별에 따라 소재, 세탁/관리성, 디자인/스타일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잠옷의 기능성과 실용성 및 심미성에 민감한 소비자임을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잠옷구매시 소재, 세탁/관리성, 착용감, 디자인/스타일, 서비스 측면을 더 고려하고 있음을 보였고, 직업에 따라서는 서비스 측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생보다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제품의 수선,

A/S 측면의 서비스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상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미혼자들에 비해 기혼자들은 잠옷 구매시 상표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별 고려정도에 따른 소비자 특성을 요약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소재, 세탁/관리성, 디자인/스타일 등 실용기능성과 심미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대학생 또는 고학력의 직업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다른 집단보다 소재, 착용감, 세탁/관리성, 디자인/스타일, 서비스 차원을 고려하여 기능성, 실용성, 심미성 등 좀 더 다양한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잠옷에 대한 고관여 소비자임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성, 학력, 직업유무와 같은 소비자 특성변수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겉옷 뿐만 아니라 잠옷제품의 세분화에 의미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표 5〉 사회인구통계적 변인과 겨울철 잠옷평가기준

		소재	세탁/ 관리성	착용감	디자인/ 스타일	상표	서비스	경제성	타인 반응
성	남성	3.78	3.68	4.17	3.72	2.83	2.97	3.76	2.68
	여성	3.96	4.07	4.26	3.98	2.97	3.05	3.82	2.82
	t-value	-2.39*	5.16***	1.39	-3.13**	-1.60	-0.86	-0.74	-1.42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3.20 b	3.40 a/b	3.20 c	2.80 c	2.60	3.00 a/b	3.00	2.80
	고등학교 졸업	3.65 b	3.84 a/b	3.98 b	3.54 b	3.08	3.33 a	3.74	2.53
	대학교 재학중	3.85 b	3.83 b	4.24 a	3.90 a	2.81	2.87 b	3.80	2.78
	대학교 졸업이상	4.05 a	4.09 a	4.30 a	3.98 a	3.02	3.13 b	3.82	2.79
	F-value	5.16**	4.03**	6.15***	5.47***	2.21	4.38**	1.72	0.88
직업	비전문직	3.84	3.92	4.14	3.74	3.04	3.30 a	3.73	2.57
	전문직	4.04	4.08	4.30	3.92	2.93	3.15 a	3.84	2.87
	주부/무직	3.82	4.04	4.08	3.82	3.15	3.13 a/b	3.88	2.76
	학생	3.85	3.84	4.26	3.91	2.83	2.86 b	3.80	2.77
	F value	1.44	2.33	1.51	0.80	1.85	4.78**	0.41	1.12
결혼 여부	기혼	3.95	3.93	4.19	3.82	3.08	3.09	3.69	2.75
	미혼	3.87	3.92	4.26	3.89	2.82	2.98	3.85	2.77
	t-value	0.96	0.06	-1.04	-0.82	2.72**	1.09	-1.95	-0.16

* p<.05, ** p<.01, *** p<.001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겨울철 소비자 특성에 따른 잠옷이용실태와 구매시 평가기준을 파악하여 겨울철 잠옷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청주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20~50대 남녀 523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겨울철 잠옷 유형별 소유빈도는 츄리닝, 파자마형, 티셔츠/바지류, 속옷류, 원피스형 순으로 나타나 겨울철 잠옷으로서 츄리닝과 파자마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소유빈도가 높은 츄리닝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파자마형이나 원피스형의 별도 잠옷보다는 티셔츠/바지류 또는 속옷류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함으로써 일상복이나 속옷을 잠옷으로 대체하여 이용하는 경향이었다. 이는 보온력이 높은 일상복이나 속옷류를 취침시 착용함으로써 쾌적감을 증진시키려는 체온조절의 행동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결혼에 비해 경제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잠옷구매보다는 일상복을 잠옷으로 대체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향임을 보였다.

둘째, 생리적 특성에 따라 잠옷이용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여원형은 츄리닝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나 비만형은 취침시 속옷류를 착용하는 경향이었다. 추위를 많이 탈수록 츄리닝과 티셔츠/바지류를 잠옷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수면시 열적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원형이나 추위에 민감한 사람은 보온력이 있는 편직물을 선호하며, 피복면적을 증가시켜 피부온을 높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잠옷이용도를 보면, 여성, 주부, 침대를 사용하는 집단이 원피스형 잠옷이용도가 높으며, 연령이 높고 기혼이며 전문직 소비자들은 파자마형 잠옷이용도가 높았다. 한편 츄리닝과 티셔츠/바지류는 20대의 젊은 층, 미혼이며,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였으며, 속옷류는 50대 이상의 기혼남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성, 연령, 학력, 결혼여부, 직업, 취침양식에 따라 잠옷의 필요도와 이용도가 다르므로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의류제품

으로서의 상징적 소비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 특성에 따른 잠옷제품의 차별화된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넷째, 겨울철 잠옷 구매시 고려된 평가기준은 일반적으로 착용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세탁 및 관리용이성, 소재, 디자인 또는 스타일, 경제성, 서비스, 상표, 다른 사람의 반응 순으로 나타났다. 잠옷 유형별 고려된 평가기준을 비교해 보면, 원피스형을 소유한 소비자들은 디자인 또는 스타일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며, 파자마형은 세탁 및 관리용이성과 소재를, 츄리닝과 티셔츠/바지류를 소유한 소비자들은 세탁/관리용이성, 디자인, 경제성의 고려정도가 높으며, 속옷류에서는 소재와 경제성 측면이 다른 잠옷유형에 비해 많이 고려하는 제품속성임을 나타냈다.

다섯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 학력, 직업, 결혼여부에 따라 구매시 고려된 잠옷평가기준에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소재, 세탁/관리성, 디자인/스타일을 더 많이 고려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소재, 세탁관리성, 착용감, 디자인/스타일, 서비스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었다. 한편 직장인이 학생보다 서비스 요인을 중요시하며, 기혼자들은 미혼자보다 상표를 더 많이 고려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겨울철 잠옷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 별도의 잠옷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용된 잠옷유형에 차이를 보임으로서 기본적으로 계절별 소재, 스타일 측면에서 차별화된 제품전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겨울철 잠옷제품은 추운환경에서의 침상기후를 고려하여 투피스형의 파자마형이나 츄리닝 스타일을 통해 피복면적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직물보다는 편성물을 사용하여 보온성과 기능성을 높임으로서 열적쾌적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편성물의 경우 세탁·관리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제품개발시 직조 및 가공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겨울철에는 여원 체형과 주관적 한랭감과 같은 생리적 특성에 따른 착용습관을 고려하여, 소비자 체형별, 추위타는 정도에 따른 잠옷제품의 차별화된 전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즉 추위에 민감한 여원체형은 보온성 증가를 위해 정지

공기총을 이용할 수 있는 면편성물 소재나 방열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구부를 막은 얇은 츄리닝 또는 파자마 스타일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회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 잠옷유형과 평가기준에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존의 원피스형과 파자마형의 제한된 스타일에서 벗어나 좀더 실용적 제품으로서의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개발과 착용감과 기능성이 부여된 소재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수면의 패작성을 증가시키고, 마케터 입장에서는 소비자 요구에 부합된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위해 잠옷제품에 대한 기대성능과 유형별 요구도 및 만족/불만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잠옷, 잠옷이용도, 추위타는정도, 체형, 평가기준

참 고 문 헌

- 권수애, 김은영, 최종명, 이은경(2000). 여름용 잠옷착용실태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충청 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6), 838-849.
- 김미영, 이은영(1989). 의류상품 유형별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I), 한국의류학회지, 12(2), 249-257.
- 김정숙(1999). 한국 주택의 수면환경 실태조사, 국제수면환경심포지움자료집, 한국의류산업학회, 13-26.
- 나영주(1990). 수면환경의 제반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원교, 최정화(1999). 의복의 소재 및 형태가 보온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3(8), 1098-1109.
- 심부자역(1984). 의복위생과 착장, 태화출판사.
- 정연, 성수광(1997). 침구류의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비즈니스학회, 1(4), 19-18.
- 정운선(2000). 추위에 민감한 사람의 체온조절반응과 의복선택행동, 한국의류학회지 24(2), 199-204.
- 황수경, 최정화, 성화경(1999). 계절별 착의량이 안정시 에너지 대사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3(3), 483-494.
- Chen, C. H(1976). Studies on human adaptability to climatic conditions. Report 4. Seasonal variations in basal metabolic rate on Civilian Japanese and Caucasians in Japan, *JPN.J.Hyg.*, 31(3), 404-416.
- Jeong, W. S.(1999). Clothing Selection behavior of the aged women for thermal comfort. *Journal of Physiological Anthropology*, 18(3), 87-90.
- Kim, H.E, and Tokura, H(1995). Influence of different light intensities during the daytime on evening dressing behavior in the cold, *Physiological Behavior*, 58(4), 779-783.
- Kweon, S.A., Kim, E.Y., Choi, J.M.(2000). Subjective preference and fabric hand for sleepwear in winter, International Congress on Physiological Anthropology, *Proceedings*, 377-378.
- Stolwijk, J.A.(1977). Response to the thermal environment, *Fed Proc.*, 36(5), 1655-1658.
- 全川奉次郎(1984). 寢具用類に要されろ性能, 纖維製品消費科學, 25(1), 20-25.